

# 일반 살모넬라균 차단으로 추백리 피해 최소화 해야

— 주변 그룹의 살모넬라 피해 심각해 —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공중위생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살모넬라균증의 양성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장내 일반적인 살모넬라균의 차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계장의 살모넬라균은 100여종으로 사람, 가축, 야생동물등 광범위한 매개원에 노출되어 있으며 살모넬라에 의한 양계주요 질병은 10여종 정도로 이중 5종은 심각한 문제질병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추백리와 닭티프스, 파라티프스가 생산성과 계육산업의 피해를 크게 하고있다.

이들 질병은 주로 난계대에 의해 전염되어 종란에 대한 위생철저가 요구되지만 오염사료나 각종 동물에서 순환 감염되는 닭파라티프스는 소화장기보균으로 난각을 통해 전파되기도하며 공중위생과의 관련성으로 앞으로 닭고기 판매에도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추백리검사 결과 선진외국은 1%이내로 경제성이 낮아 도태를 통해 해결해 가는데 비해 국내

양계장에서는 추백리균과 80% 상당의 다른 종류의 살모넬라가 검출되어 양성율을 높게 나타내기 때문에 농장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농장의 검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장내 상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혈청형의 살모넬라균의 수평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위생상태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종계의 수직, 수평감염의 주감염원의 철저한 차단과 쥐에 의한 사료, 급수기, 급이기의 오염 차단, 사료공장의 차량, 가금부산물 사료, 부화장 기계 기구오

염, 종계장 및 농장위생, 농장출입차량(병아리, 계분, 사료차량), 도계장 위생 등 종합적인 살모넬라균의 차단을 생활화 해야한다. 전국의 농장, 도계장을 순환하는 닭어리장의 소독시설 의무화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그룹의 살모넬라를 먼저 구제해 일반적으로 살모넬라균의 수가 줄어 양성율이 낮아진 후 추백리에 의한 양성계 도태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추백리 방역을 강화, 실시요령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추백리 검사를 종계장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논리에서 일반적인 살모넬라균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발생할 "ZERO"는 어려워도 피해의 최소화는 가능할 것이다.

## 사료업계, 브랜드 육류용 특수사료 개발 활발

배합사료 생산업체의 국산 육류 브랜드용 사료개발이 활발해지고있다.

대부분 돼지고기 및 닭알을 위주로 생산하는 특수사료는 P. J. C사 등을 시작으로 4~5개 배합사료사들이 전업농가에 계약, 공급하고 있으며, 브랜드육 생산으

로 축산물 소비확대는 물론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닭고기 관련 특수사료의 공급으로 국내 닭고기의 브랜드육 차별화와 배합사료 공급의 고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계열주체와 사료회사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단 신

### 계열사육 책임자 회의 개최

육계계열화업체 계열사육 책임자 모임이 지난 10월 27일 온양 그랜드파크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모임은 본회 계열회분과 10월 정례회의에서 기술적인 정보교환 및 통계자료 교환 등 필요성이 인준돼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여 개최된 것이다. 동모임에서는 앞으로 계열농가 지도를 위한 기술강습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 영육농산 계열농가 선진지 견학

영육농산 계열사업부는 우수계열사육농가 선진지 견학을 지난 10월 20일 부터 6박7일동안 실시했다.

태국, 홍콩의 도계장, 농장, 닭유통시장을 돌아본 이번 선진지 견학에는 계열농가 대표등 관계자와 동사 직원등 총 19명이 참가 했다.

### 육영회, 하림 공장 견학

계열화업체 영업책임자 모임(육영회)은 지난 10월 27일 부터 2일간 국내선산지 견학으로 (주)하림 공장을 시찰하였다. 이번 견학은 매월 회원사회의를 주선해 실시하는 월례회의를 하림에서 주관하면서 공장을 시찰하게 되었다.

### 대연, 공채직원 실무배치

대연식품은 '95공채직원 교육을 마치고 10월 19일 부터 각 부서에 실무배치를 하였다. 이번 10기 공채직원은 모두8명으로 사육부 농장지도 업무에 여성직원을 배치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업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국제 체인스토아쇼에 닭고기 관심높아

미원마니커와 한일식품이 10월 21일 부터 25일까지 KOEX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체인스토아쇼"에 참가해 닭고기제품의 소개와 점포운영, 체인점 개설 협의 등 닭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브랜드 홍보에 나서 국내외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 식량무역, 수입국 경쟁시대 도래

국제 식량무역은 공급자경쟁에서 앞으로 수요자 경쟁시대로 바뀔 전망이다.

옥수수 선물가격이 부셸당 3.3블로 시카고 곡물시장에서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밀값이 1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세계곡물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세계곡물시장 비축재고가 예년의 17% 수준에서 13%로 낮아지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계속되는 세계 곡물수확의 감소와 인구증가로 식량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

금년 기상이변은 곡물작황의 흉작을 예견하고, 어업의 경우도 89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은 늘고 있지 않다. 세계는 생물공학이나 유전공학을 이용해 곡물의 증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어떤 종류의 곡물도 급격한 생산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다만 생물공학으로 병충해 억제에 기여해 곡물증산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만족할 수준은 되지 못했다.

UR등 그간의 수출국간의 경쟁으로 쌀시장 개방 등 압력을 넣었으나 세계적인 식량생산 감축으로 수입국간의 경쟁으로 변해가고 있다.

결국 곡물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백질원의 식량

원으로의 계육산업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태국, CP농장 1인당4만수 관리

50만수 규모(100에이커, 약 12만평)의 육계농장을 8개 자체 사육하고 있는 태국 CP그룹은 자체사육농장 4백만수를 포함 약6백만수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하루 10만수 규모를 all in, all out에 의해 출하하고 있다.

1.9~2.0Kg의 닭을 목표체중으로 43~45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6회전을 사육하고 있다. 1인당 4만수를 관리하는 동사 95년도 사육성적은 농장폐사율 4%, 평균 출하체중 1.97Kg, 사료 요구율 1.89이다. 1Kg 닭 생체 생산에 필요한 사료비는 약440원(14바트)이며 병아리는 마리당 약250원(8바트)으로 나타났다.

### 미국, 캐나다 관세 논쟁

미국은 북아메리카를 자유무역협정(NAFTA)의 특별구역으로 설정, 이웃나라 캐나다에 공급하고 있는 계란, 가금육, 유제품 등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의 합법성에 대해 논쟁화 시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가

계란, 닭고기, 칠면조,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에 대한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 35% 이상의 높은 캐나다의 관세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NAFTA가 WTO 협정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계산물을 쿼터제로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의 달걀, 닭 값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생산되고 있다.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본부 내년초 출범예정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본부를 내년초 출범시킬 전망이다. 한국의 FDA로 일컫어지는 동본부는 식품국과 약정국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으로 법률안이 국회회를 통과하면 금년 내로 시행령, 규칙을 준비하여 소요인력과 예산확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험·검정·평가업무를 국립보건원과 보건안전 연구원을 통합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을 발족시켜 미국식품의약청(FDA)에 버금가는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전국 생활권별로 6개 지방청을 설치해 식품의 수거검사, 기동감시, 정보관리,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8개국 150여개 참가업체 중 닭고기와 관련해 미원마니커, 한일식품, 봉산식품이 참가했다.

### 독일, 통일 후 양계생산 증가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닭생산이 활기를 띠고 있다. 1992~1994년 사이 닭고기는 35% 증산을 기록해 94년도 프랑스 생산을 앞지르고 있으며, 병아리, 증추, 산란계, 브로일러, 칠면조 생산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Agro Europe은 보고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도 더 많은 닭고기와 달걀 생산을 위해 양계산업은 성장일로에 있다.

### 일본의 닭고기 수입에 대한 세미나 개최

일본에 닭고기 수출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일본

닭고기 산업 전망과 수입'에 대한 세미나가 오는 11월 14일(화) 14:00~17:00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육류수출협회와 육가공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 식조협회회장 이시마씨의 '일본 육계산업 전망과 향후 수급(수입)방향' 및 후생성 유육위생과 모리다 식육담당관의 '일본 식육검역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관을 바란다.

### 미국 TYSON사 제품 설명회 개최

세계 최대의 가금류 식품회사인 Tyson Food사는 10월26일 Sampling Show 를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닭고기 제품, 수산물 가공품 등 20가

지의 제품이 선보여 200여명의 참석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타이슨사는 앞으로 한국 닭고기 시장에 생육보다는 가공품 위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냉동 가금육 유통기간 9개월

보건복지부는 식품공전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지난 10월 4일 수정 고시했다.

축산물의 경우 진공포장 냉장육 유통기한을 -2~0℃보관시 쇠고기 90일, 돼지고기 45일, 양고기 60일로 하고 냉동육의 경우 -20℃이하에서 쇠고기 12개월, 돼지고기 닭고기는 9개월로 조정했다.

## 추백리검사 수의과학연구소가 실시

농림수산부는 추백리방역실시 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84-12)을 개정 96. 1. 1부터 추백리 검사와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계장의 검사는 관할 가족위생시험소장이 실시하고 순계(PL)과 원종계(GPS)는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검사결과 양성율이 1% 이상의 종계장은 재검사까지 종계로 사용을 금하며 재검결과 양성율이 1%이상 확인되면 종계업등록이 취소 된다.

## 노계정육 소비부진

전용육계인 Broiler 소비가 신장하는데 비해 노계육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종계 또는 산란계 노계육의 최대 수요처는 햄, 소세지 등 육가공 원료육으로 제일제당, 롯데햄, 진주햄에서 노계육 생산의 80%가까이 소비하고 있는데 최근 수입 칠면조육보다 가격면에서 불리해 노계육을 취급하는 전문도계장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월간 300~600톤을 취급하는 J사에서는 노계정육 Kg당 1,700원이 넘는 경우 많은 양을 칠면조고기로 대체 사용하며 노계육

납품을 기피하고 있다. 인건비와 제비용의 상승으로 노계전문

## 아시아 지역 냉동 닭고기 수입 증가추세

UN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93년도 세계 냉동닭고기 수출은 31억 5천만톤(41억 3천 5백만불)이며 미국이 91만 7천톤을 수출해 1위에, 브라질 51만 1천톤, 프랑스 44만 2천톤, 네덜란드 31만 8천톤 순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16만 5천톤, 태국이 15만 7천톤을 각각 수출했다.

한편 닭고기 수입은 일본이 39만톤, 홍콩 33만 9천톤, 사우디아라비아 33만 7천톤, 독일 20만톤, 영국 12만 6천톤의 순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이 두드러졌다. FAO는 앞으로 중국, 러시아의 닭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가격의 급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 닭갈비 전문점이 늘고 있다.

닭갈비 전문점이 급속히 늘고 있어 닭고기 소비에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념통닭, 후라이드치킨점, 셀프호프점, 돼지고기 요리점 등이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닭갈비 전문점 간판

도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노계정육을 이용한 새로운 가공제품의 개발과 경쟁력 있는 노계정육 생산이 필요하다.

으로 바뀌고 있다.

"초가집 춘천닭갈비" "춘천소양닭갈비" "춘천대가" "춘천명가" 등 7~8개의 닭갈비 브랜드가 성업중인 닭갈비업계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성가가 더욱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체인점을 40~60개 정도를 소유하고 신문등 홍보매체를 적극 이용해 광고에 나서고 있다.

닭고기가 "화이트 미트"로 고단백, 저칼로리,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최근의 닭갈비 점포는 증가추세이며 이밖에도 닭고기 전문점인 엠엠, B. B. Q, 씨스너프 등 닭고기 전문점의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 11월 닭고기 우수성 홍보

- KBS-2R 09:10~
- 김수미·강남길의 행복만들기 1부
- MBC-FM 10:00~
- 음악살롱 3부
- 잡지 우먼센스, 여성동아,
- 진리의 벗이되어 11월호



## 양계사랑 30년 한일!

'95 양계박람회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축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더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축산인과 함께하는 축산전문 회사

**한일사료 한일농원 한일식품**

## 속이 꽉찬 신선 닭고기

**우인산업주식회사**  
WOON INDUSTRIAL CO., LTD.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15-2  
TEL: (032)547-2220 ~ 3 FAX: 547-2900